"이민여성들 한국 생활 도울 수 있어 기뻐요"

'결혼 이민 여성 리더 경진대회' 농식품부 장관상 수상한 베트남 출신 최세란 씨

광주살이 7년 만에 한국 국적 획득…농업경영인 역량향상 교육 등 수료 올해부터 베트남·캄보디아 이민여성 멘토링·농촌생활 비법 전수 나서

"한국 생활이 낯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민여성 들의 멘토를 하게 돼 꿈만 같습니다."

올해 12년째 광주살이를 하는 베트남 출신 최세란 (32·사진)씨가 '제1회 결혼 이민 여성 리더 경진대회' 에서 대상인 농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이 대회는 우수 이민여성을 발굴해 모범(롤모델)을 제시하고 후계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 다. 최씨는 광주시 북구 장등동 용호마을에서 자신의 농장을 꾸리며 친환경 로컬푸드를 활발히 생산하고 있 다. 올해부터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온 이민여성에 게 멘토링을 펼치며 농촌생활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6월 최덕진(42)씨와 백년가약 을 맺으며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 서툰 한국말과 문화적 차이로 힘든 날이 많았지만

든든한 응원군인 남편과 아들(12), 딸들(11세·8세) 이 있어 씩씩하게 헤쳐 나갔다. 밝은 성격인 그는 한글을 열심히 공부해 광주에 산

지 7년 만에 한국 국적을 얻고 1종 운전면허까지 취득 최씨는 남편과 지난 2016년부터 광주농협 조합원으 로 활동하면서 지역 소비자단체인 '농가주부모임' 활 동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살이에 익숙할 무렵 남편이 콤바인 수확을 하 던 중 크게 다쳐 우리 가족에 큰 위기가 왔어요. 하지 만 동네이웃과 모임의 격려 덕에 힘을 내기로 마음 먹 었죠. 직접 친환경생산농가 교육과 로컬푸드 출하교육 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농사 짓는 법'을 공부했어 요. 남편 도움 없이 홀로 짓는 농사가 막막했는데 어느 새 직접 벼를 수확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

최씨의 학구열은 전문 농업인 과정까지 뻗쳤다. 지 난 2018년 그는 이민여성 농업인 1대 1 맞춤 농업교육 과 후계농업경영인 역량향상 교육을 수료했다. 그는 광주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되기도 했다. 최씨는 현재 3만4635㎡(1만500평) 농 지를 지닌 '대농' 반열에 올랐다.

지난해 최씨는 4111㎡ 상당 부지를 구입하고 이 가 운데 2910㎡ 농지에 시설하우스를 설치했다. 고추, 열 무, 부추 등 제철 농사를 짓는 그는 올해 여름까지 2338만원 상당 로컬푸드(직거래 농산물)을 출하했 다. 지난 2016년부터 농산물 출하실적은 2억원에 달



최씨는 적극적인 지역 봉사활동으로 지난 2016년에 는 광주북구청장 표창을 받고, 2018년에는 광주농협 조합장 표창도 받았다. 그는 내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건 '최세란농장'을 꾸리며 친환경 로컬푸드 사업을 본 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을 수상했다. 〈사진〉 최근 광주시의사회 주최로 무등산파크호

국제 NGO '(사)세상을 이어가는 끈'(이

사장 김성철)이 제 30회 무등의림상 봉사상

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세상 을 이어가는 끈'은 국내외에서 펼친 나눔 정 신을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

'세상을 이어가는 끈'은 2012년 10월 라 오스 방비엥 지역의 파댕마을에 대한 의료지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등 아시아 지역을 찾아가 의 료, 문화, 교육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캄보디아에 '광주교 육문화센터'를 개소하고 지속적으로 문화

교육 자원활동을 펼치며 매일 100여명의 아이들과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미얀 마·시리아·몽골 지원사업도 꾸준히 펼치고

그밖에 광주이주민건강센터 무료진료지 원과 국내 이주민들의 자립공동체 지원을 위 해 방역물품과 후원금 및 현물지원 등 다양 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성철 이사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 든 때 회원과 후원자들의 마음을 모아 앞으 로도 '광주의 마음'을 국내외에 전하기 위한 나눔과 아름다운 연대를 실천해 나가겠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KIA 최형우, 야구도 선행도 '굿' …취약계층 위해 1억원 쾌척

KIA 타이거즈 최형우〈사진〉가 취약계층을 돕기 위 해 국제 구호 NGO '글로벌쉐어'에 1억원을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보육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식료품・ 생필품 지원, 교육비, 의료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최형우는 "팬들의 사랑과 응원 덕에 오랜 시간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 해 나눔에 동참했다"며 "특히 지난해 아빠가 된 이후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에 대해 관심이 커졌다. 앞 으로도 꾸준히 취약계층 후원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 했다.



최형우의 나눔은 이번이 처음 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유소년야구 기 금으로 2억원을 기부했고, 모교 인 전주 진북초와 전주고에 매 년 야구용품이나 발전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유소년 야구선 수들을 만나 '원 포인트 레슨'을

하는 등 재능 기부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유노윤호, 고향 광주에 마스크 기부

광주시는 광주 출신 케이팝 스타 유노윤호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을 위해 마스크 5만장을 시에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마스크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취약계층에 게 전달할 계획이다.

유노윤호는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고향 광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

스크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광주 충장로에 광주 출신 케이팝 스타를 주제 로 한 '케이팝 스타의 거리'를 조성 중이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몽골 이주여성 의료비 1000만원 지원

'세상을 이어가는 끈' 무등의림상 봉사상 수상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오른쪽)는 25일 '아시아밝음공동체'를 통해 몽골 이주여성 의 항암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비 10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나를 사랑한 스파이(재)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05 한국인의 밥상(재) 55 UHD 숨터	00 도도솔솔라라솔(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인간극장 스페셜	00 12 MBC 뉴스 15 생방송 연금복권 720+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뽀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날아라 개천용(재)
1	00 TV쇼 진품명품(재)		20 꾸러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명탐정 핑크퐁과 호기 45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 6			00 뉴스브리핑
3	00 마법소녀 디디 30 열린채널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기분 좋은 날(재)	00 톡톡 보험설계(재)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00 또봇V 2 15 캐치! 티니핑 30 주간연예수첩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다큐플렉스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퀴즈! 행복을 담는 도시락, 목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펫 비타민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도도솔솔라라솔	20 나를 사랑한 스파이	00 맛남의 광장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40 KBS 드라마 스페셜 2020 〈고백하지 않는 이유〉	40 UHD특집 다큐멘터리 건축의 시간	35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글로벌 파워 뮤지션발굴 프로젝트 ASIAN TOPBAND	55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1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15 통합뉴스룸 ET(재) 45 사랑의 가족(재)		25 나이트라인 55 닥터 365

-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 07:00 띠띠뽀 띠띠뽀
- 07:15 로보카 폴리 07:30 뽀롱뽀롱 뽀로로
-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2
- 08:45 뭐든지 뮤직박스
- 09:00 레인보우 루비
- 09:15 또깨비 가족 09:30 몰랑
-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EBS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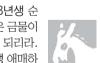
-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2:25 지식채널e
- 12:30 클래스 e
- 13:00 명의
- 13:55 EBS 스페이스 공감
- 14:45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 15:4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 16:00 방귀대장 뿡뿡이(재)
- 16: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 16:30 딩동댕 유치원(재)
- 16:50 해요와 해요 17:00 EBS 뉴스
- 17:20 형사 가제트

- 17:45 최고다! 호기심 딱지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 19:00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19:30 자이언트 펭TV
- 19:45 다큐 잇it
- 20:35 아주 각벽하 기한
-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 〈파라이소 중남미-언더월드 멕시코〉 21:30 한국기행

2 010-9790-8237

- 〈이곳에 사는 이유 4부
- 보물섬을 찾아서〉
- 21:50 파란만장
- 22:45 한국에 산다
-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 23:50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6일 (음 10월 12일 癸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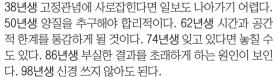
36년생 이해관계인의 파격적인 제의가 보인다. 48년생 순 식간에 상호간의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으니 방심은 금물이 다. 60년생 혼신의 힘을 경주한다면 분명히 극복 되리라. 72년생 아주 적절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84년생 애매하 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백 번 낫다. 96년생 관계 때문 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할 수다. 행운의 숫자: 26,76



丑

子

37년생 원칙대로 실행하는 것이 내실을 기하게 된다. 49년 생 의심스러운 국면이 여러 곳에서 보이니 잘 살펴야 하느니 라. 61년생 가까운 이와 함께 하면서 가닥이 잡히겠다. 73년 생 가급적 빨리 조처하는 것이 옳다. 85년생 관계를 개선하 면 예기치 못한 기회들과 접하게 된다. 97년생 표면과 내용 이 모두 완벽해야 의미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00,58



申 행운의 숫자 : 98,96



卯

39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51년생 융통성을 발 휘하여 파격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63년생 상대의 장난 이 보인다. 75년생 머지않아 적응하게 될 것이니 묵묵히 임 하라. 87년생 한꺼번에 몰리는 형태이다. 99년생 집요해야 이루어질 것이니라.

酉 행운의 숫자: 04,91



40년생 오버 센스 하다가는 허방을 짚을 수도 있느니라. 52 년생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리라. 64년생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서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76년 생 대범하게 넘어가도 된다. 88년생 한 동안 잠잠했던 현상 이 다시 시작 되면서 괴로움을 준다. 00년생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4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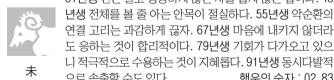


41년생 형세를 뒤집을만한 신춘의 새싹이 아름답기 그지없 다. 53년생 화려한 영광을 누리게 될 수다. 65년생 숨이 막 힐 정도로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기리라. 77년생 사세부득 이 그렇게 됨을 알라. 89년생 지금 진퇴를 분명히 하지 않으 면 나중에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다. 01년생 동반하는 국세 에 활로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4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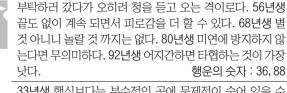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66년생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음을 알라. 78년생 균 형 감각을 상실한다면 곤란해질 것이다. 90년생 부분적인 것이 큰 국면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02년생 하나의 현상이 대부분의 형국에 영향을 미치리라. 행운의 숫자: 33,71 31년생 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 법이다. 43

42년생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 54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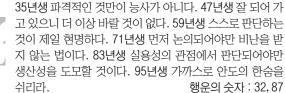


니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지혜롭다. 91년생 동시다발적 으로 속출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2,83 32년생 모난 그릇에 둥근 뚜껑을 덮으려는 격이다. 44년생 끝도 없이 계속 되면서 피로감을 더 할 수 있다. 68년생 별 것 아니니 놀랄 것 까지는 없다. 80년생 미연에 방지하지 않



33년생 핵심보다는 부수적인 곳에 문제점이 숨어 있을 수 있다. 45년생 서로 통하여 말하지 않아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57년생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69년생 사전에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81년생 배 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93년생 지금 마무리 하는 것이 낫 행운의 숫자: 40,97

34년생 깊이 성찰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후회하지 않는다. 46년생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될 전망이다. 58년생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처지이다. 70년생 평온하게 진행 될 것이다. 82년생 도리에 맞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 94년 생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하고 있었지만 미처 의식하지 못 했던 바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35, 59





戌